

畜産政策과 養鹿

安 鼎 植

우리나라의 畜産은 休戰後 國家經濟의 伸張과 더불어 健全한 指導體制下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飛躍的인 發展을 持續해오고 있다.

묵묵히 땀흘려온 우리 畜産業者에 의한 이러한 發展은 繼續 부족하였던 食糧의 充當뿐 아니라 各種 畜産物에 含有되어 있는 動物性 蛋白質 攝取 및 諸般 營養所를 供給하는 등 國民 食生活 改善에 앞장서 全國民의 體位 및 體力 向上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다른 業種의 國家에 대한 寄與못지 않을 것이라 思料되며 또 우리 養鹿農家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新鮮한 鹿血과 良質의 鹿茸을 生産하여 老弱者, 病弱者 그리고 나가서 全國民의 健康增進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其現實로서 우리의 젊은 世代들의 體位와 體力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畜産人의 勞苦를 叱하하지 않을 國民은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今年度의 올림픽경기에서 우수한 成績을 거두어 國位선양에 이바지한 것도 운동 선수 本人들의 努力뿐만 아니라 畜産人의 努力에 의한 體力向上의 결과라고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國民生活에 크게 기여한 畜産農家を 위해 政府는 小規模 畜産農家基準을 정하여 副業形畜産業으로서 所得稅免稅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山林廳所管이었던 사슴은 1957年 農林部로 行政移管과 同時에 畜産物로 인정

되었으며 全國의 많은 農家에서 다른 畜産과 같이 飼育되고 있는 現在까지도 副業形 畜産業의 基準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

사슴飼育은 1950年代에 몇사람의 노력으로 日本, 臺灣, 뉴질랜드, 캐나다등지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當時부터 3~4年前까지의 사슴시세는 지금의 몇배나 되어 當局뿐 아니라 一般的으로도 사치성 畜産業으로 認識되어 所得稅 外에도 特別消費稅를 課稅해 왔으나 現在는 지난 날과는 달리 飼育者의 대부분이 一般 農民임을 감안하여 政府當局에게 稅制혜택이나 山林地利用등 他畜産業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飼育되는 사슴은 무려 6萬여頭나 되며 副産物인 乾鹿茸의 生産量은 年間 약 1萬kg에 달하고 있으나 輸入鹿茸으로 인하여 글로서 表現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고 각 農場에서 生産한 鹿血과 鹿茸을 구걸식으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사슴가격 또한 大暴落으로 인해 貶값에 去來되는 관계로 養鹿農家は 繼續 죽어간다는 事實을 畜産當局에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現在까지의 사슴증가 추세를 그대로 維持 한다면 不過 수년후인 1995년에는 사슴 飼育頭數가 약 40萬여頭に 달할 것이며 乾鹿茸生産도 약 5萬kg으로 추정되어 國內産鹿茸만으로도 國內需要를 충당케되어 鹿茸輸入은 必要없게되

어 不必要한 外貨消費를 막을 수 있게 되므로 때늦은 감이 있으나 畜産장려政策의 一環으로 養鹿業의 發展을 위해 養鹿 및 鹿茸에 관한 研究機關등을 設置하여 4千여 養鹿農家가 安心하고 所得增大에 全力을 다할 수 있을 때에 비로서 國民健康增進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外貨節減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年間 약 5萬여 kg의 乾鹿茸을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全世界 第一位의 鹿茸輸入國인 韓國의 畜産當局이 養鹿農家の 現實을 外面하고 있는 實情으로 인해 모든 養鹿農家로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畜産政策當局을 원망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돕고 양보하며 立場을 바꾸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官은 民을 믿고 民은 官을 믿으며 건전한 生活基盤下에서 國家發展에 이바지하여야만 오늘과 같은 社會混亂을 야기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과거와 같은 畜産政策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努力할 것을 바라며 앞으로도 畜産政策에 있어서 當局에서는 政策樹立이나 業務遂行에 있어서 全力을 다하여 畜産業者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며 全國民이 잘 아는 바와 같이 1년전만 하더라도 至今의 쇠고기파동을 예상치 못하고 처녀소, 암소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도살함으로서 國內 소飼育頭首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은 쇠고기파동을 겪고 있으며 또한 몇년전 농촌에 政策的으로 도입소를 頭當 60여萬원에 輸入하여 農民들에게 130여萬원에 입식시킨후 1년만에 출하한 結果 70~80萬원으로 下落되자 負債를 갚을 能力이 없어진 農民이 自殺까지한 事實등은 분명히 政府나 畜産當局의 커다란 過誤로서 本人도 畜産人의 한사람으로서 畜産政策을 원망치 않을 수 없으며 一連의 이와같은 施行錯誤로 財產上의 損

害와 精神的 被害를 입은 수많은 畜産農家를위하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政策錯誤가 發生하지 않도록 現時點에서의 畜産現況을 감안하여 健全한 畜産發展을 위한 政策을 모든 畜産業體間에 同一하게 實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畜産政策에 대한 山林利用現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全國土의 面積은 9,899,000 ha 이며 그 중에서 5,100 ha는 草地造成을 마쳤고 畜産장려政策의 一環으로 1983~1986年까지의 試驗開發期間과 1987~1991年까지의 擴大開發期間을 정하여 20萬ha에 땅을 開發할 計劃을 세우고 投資金額만 하더라도 2,563億원이라는 엄청난 計劃이 樹立되 있는 反面 養鹿도 같은 畜産인데도 불구하고 養鹿農家에 對한 畜産政策은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養鹿業의 現實과 先進國家의 養鹿業을 비교하고 긴 앞날을 감안하여 政策當局에서는 낙농업과 같이 山林利用을 許容케해준다면 野生사슴의 鹿茸못지 않은 良質의 鹿茸을 生産할 수 있으며 稅法 역시 조속히 改正하여 他畜産業과 同一하게 副業形養鹿의 基準을 정하여 小規模養鹿農家は 非課稅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농에 대해서는 막대한 國家補助外에 山林地를 開發하여 지원하면서도 비록 養鹿業界만 도외시하고 있는 政府의 畜産政策은 시행에 있어 平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政策은 있을 수 없다고 判斷되므로 養鹿業도 他畜産業과 같이 동등하게 대해줄 것을 再次 당부하는 바입니다.

國內產 鹿茸을 천시하고 外國產 鹿茸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一部 國民들은 無條件 外製를 선호하는

認識에서오는 影響으로 鹿茸 역시 그러한 認識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들쨌는 外國에서는 野山 사슴을 마음대로 사냥하여 野生사슴의 鹿茸을 採取하는 것으로 誤認하고 있는데 外國의 養鹿業은 우리와 흡사한 形式의 養鹿農場에서 飼育한 사슴의 鬚을 採取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나라 國民의 思考方式이 問題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生産者의 말을 믿기보다 中間 商人의 말을 認定하고 있으며 또한 中間商人보다는 學界나 政策當局의 權威있는 말이라면 實需要者들은 모두 認定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때 學界나 畜産政策當局의 한마디의 放送이나 紙上報道는 마치 핵폭탄보다 더 偉力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에 메추리알이 高水準의 營養을 含有하고 있다고 放送이 되자 많은 消費者들이 메추리알은 찾았었는데 그후 메추리 飼育者가 아무리 宣傳을 해도 認定을 받지 못하여 販賣不振으로 인해 모두 失敗하고 말았을 뿐 아니라 오리, 양고라토끼, 지렁이, 굽병이등도 한마디의 放送으로 인기가 불길같이 치솟았다가 權威없고 認定받지 못하는 飼育者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農畜産物의 대부분이 가끔 販路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기에 畜産政策當局에서는 生産者와 消費者가 모두 共感이 가는 政策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鹿茸은 輸入鹿茸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고 認識되어 있으나 실제로 本人이 中國大陸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各 動物의 飼育과 管理 특히 養鹿業을 細密히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사슴飼育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았으며 氣候風土 역시 우리와 비슷하고 山勢까지도 別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臺灣이나 뉴질랜드는 山勢나 氣候, 또 家畜의 疾病 發病

度등을 감안한다면 도리어 우리나라가 養鹿飼育의 適地로 判斷이 되며 美大陸으로부터 캐나다 西部의 록키山 附近에서 엘크를 飼育하는 農場의 飼養管理를 본 結果 國內産 鹿茸이 質의 面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本人의 見解로 國內養鹿業이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飼育場의 협소와 鹿茸折角時期, 鹿茸加工技術의 改善이라고 생각되므로 우리 4千 養鹿農家は 協會를 中心으로 굳게 뭉쳐 政策當局의 協助를 要請하여 政府의 支援下에 國産鹿茸의 品質을 보다 높혀 國民保健과 外貨節約에 寄與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養鹿協會 副會長

■ 회비안내 ■

1988년도 결산이 얼마남지 않았 습니다. 아직까지 납부치 못한 회원은 1989년 1월말까지 중앙회로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방법은 우체국 온라인

02591 - 0049639

한국양록협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알 림 ■

목장탐방에 동참을 원하시는 목장은 본회에 신청하시면 편집실에서 검토해서 소개할 것이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편집실 제공